

'94 국제곡물 및 배합사료 가격전망



장성기 전문
((사)한국사료협회)

1. 서론

'93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92년 대비 3% 정도 성장한 1,3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입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축산경기 위축과 양축가들의 사육심리 저조로 국내배합사료산업은 과거의 성장기에서 벗어나 정체기를 거쳐 감소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사료자원 부족으로 배합사료 원료를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93년도 미국 중서부지방의 대홍수

에 따른 세계 곡물수급 압박의 영향으로 '94년도의 국제 곡물가격이 강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의 원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94년도 세계 사료곡물 수급전망과 원료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코자 한다.

2. 가격 및 수급동향

'93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교하여 세계 곡물 생산량은 충분할 것으로 미농무성은 발표하였고, 러시아의 부채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구매가 당분간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미지역은 대두 작황의 호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어 C&F 톤당 123불대로 지속적인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미중서부 곡창지대의 대홍수로 평상시 건조지역이었던 이 곳은 10만평방마일 이상 침수되어 대두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제곡물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안정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속적인 강우로 옥수수와 대두 등은 식부가 지연되고 생육조건은 악화되어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미국에서의 옥수수, 대두 등의 폭등세에 힘입어 그동안 C&F 톤당 110불대의 안정세를 보였던 중국산 옥수수도 톤당 3~5불 가량 상승하였다.

소맥의 경우는 옥수수와 대두처럼 폭등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봄밀의 수확기동안 강우로 인한 품질저하로 식용소맥은 생산이 감소되고 사료용 소맥 공급량은 증가되어 식용 소맥가격은 상승하고 사료용 소맥가격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8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기상이 회복되어 그동안 폭등했던 곡물가격이 정상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성장지연에 따른 서리 피해가 예상되고, 매월 미농무성이 발표하는 미국의 옥수수, 대두 생산량이 줄어들어 따라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또한 중국도 국내 소비량이

급증하여 옥수수 재고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강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사료곡물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였던 '93년도의 곡종별 수급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사료곡물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 생산은 4억 5,450만톤으로 '92년에 비해 14% (7,420만톤) 감소되었고, 기말재고량도 6,440만톤으로 '92년에 비해 36% (3,690만톤) 감소되었다.

미국의 생산량은 지난 여름 폭우와 일조부족의 영향으로 '92년에 비해 31% 감소한 1억 6,52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말재고도 '92년에 비해 59% 감소한 2,250만톤이 되어 1975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93년도 중국의 옥수수 생산은 '92년보다 1.7% (160만톤) 가량 증가되었고, 수출량도 '92년보다 50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근래 들어 국내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말재고량이 '91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94년도 수급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옥수수, 대두의 수급 불균형 현상과는 달리 소맥의 수급은 전체적으로 '92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소맥 생산은 5억 5,970만톤으로 '92년도와 비슷한

〈표1〉 옥수수 생산 및 재고량

(단위: 백만톤)

구 분	생 산 량			재 고 량		
	'93/'94	'92/'93	'91/'92	'93/'94	'92/'93	'91/'92
세 계	454.5	528.7	484.8	64.4	101.3	79.4
미 국	165.2	240.8	189.9	22.5	53.7	27.9
중 국	97.0	95.4	98.8	20.5	24.5	27.5

〈표2〉 소맥생산 및 재고량

(단위: 백만톤)

구 분	생 산 량			재 고 량		
	'93/'94	'92/'93	'91/'92	'93/'94	'92/'93	'91/'92
세 계	559.7	560.6	542.2	140.2	143.3	125.5
미 국	65.9	66.9	53.9	17.5	14.4	12.8
캐 나 다	27.8	29.9	31.9	12.6	12.2	9.9
호 주	17.3	16.2	10.7	7.5	5.7	3.0
EC-12	80.4	84.6	90.1	22.7	21.1	21.8

〈표3〉 대두 생산 및 재고량

(단위: 백만톤)

구 분	생 산 량			재 고 량		
	'93/'94	'92/'93	'91/'92	'93/'94	'92/'93	'91/'92
세 계	111.7	116.5	106.9	17.4	20.8	18.3
미 국	49.9	59.5	54.1	4.5	4.6	7.6
알 젠 틴	12.0	11.0	11.1	3.2	3.6	3.6
브 라 질	23.3	22.3	19.3	7.1	6.5	4.4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는 6,590만톤으로 '92년에 비해 100만톤 정도 감소되었다. 재고량은 세계가 1억 4천만톤으로 '92년대비 310만톤 줄었으며, 미국의 재고량은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량 감소로 '92년에 비해 310만톤 늘어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의 경우는 세계 생산이 1억 1,170만톤으로 '92년에 비해 4% (480만톤) 가량 감소되었고,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4,990만톤으로 '92년에 비해 16% (960만톤) 감소되었다. 기말재고의 경우는 세계가 1,740만톤

으로 '92년에 비해 340만톤 줄었고, 미국은 450만톤으로 전년대비 350만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대두박 생산은 '92년에 비해 대략 1% 정도 늘어난 7,640만톤으로 나타났고, 미국이 90만톤, 멕시코·일본·대만·EC 등이 각각 10만톤씩 감소한 반면에 작황 호조를 보인 브라질이 100만톤, 인도 80만톤, 중국 60만톤, 아르헨티나 3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두박은 생산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93년 재고량은 '92년에 비해 6% 감소한 295만톤을 유지하

〈표4〉 대두박 생산 및 수출량

(단위: 백만톤)

구 분	생 산 량			재 고 량		
	'93/'94	'92/'93	'91/'92	'93/'94	'92/'93	'91/'92
세 계	76.4	75.7	72.7	28.5	27.6	28.8
미 국	26.7	27.6	27.1	4.9	5.6	6.3
중 국	3.7	3.1	2.6	0.4	0.2	1.3
브 라 질	12.9	11.9	11.7	9.1	8.0	8.8
알 제 티 아	7.1	6.8	6.3	7.1	6.6	6.3
인 도	3.1	2.3	1.6	2.8	2.1	1.3

였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근래 들어 자국내 소비급증에 따라 수출량이 35만톤에 불과하여 수출여력을 상실하였고, 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94년도 대두박 수급은 '93년에 비해 다소 수급압박이 예상되나, 남미지역의 대두 작황 호조와 인도의 생산 증가로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4년도 곡물가격은 세계 기후 향방에 따라 변동될 것이며, 곡물 수출 중주국인 미국의 '93년도 흉작으로 전반적인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의 '93년도 생산량이 '92년에 비해 31% 이상 감소되어 수급압박이 심한 관계로 '94년도는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현 수준에서 단기간내 큰 폭의 하락은 기대가 어려울 것이며, 만약 기상이 악화된다면 도리어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93년도 캐나다, 호주, EC 등에서 사료용 소맥 생산이 증가하고 주요 수입국인 구소련의 풍작으로 미국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으

로 예상되어 가격상승 저지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료용 옥수수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으로 거의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홍수 피해로 인한 가격 태풍권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 중국 내의 소비량 증가와 미국산 옥수수 강세에 힘입어 강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93년처럼 안정적인 구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맥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의 봄 소맥 수확 속도가 지연되어 냉해 피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사료용 소맥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식용소맥의 최대 수입국인 구소련과 중국은 자국내 소맥 생산증가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두가격을 보면, 남미지역의 대두 작황은 11월부터 파종이 시작되어 다음해 3~5월에 수확이 시작되므로, 현재 남미의 작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상에 이변이 없는 한 수확기 동안은 다소 안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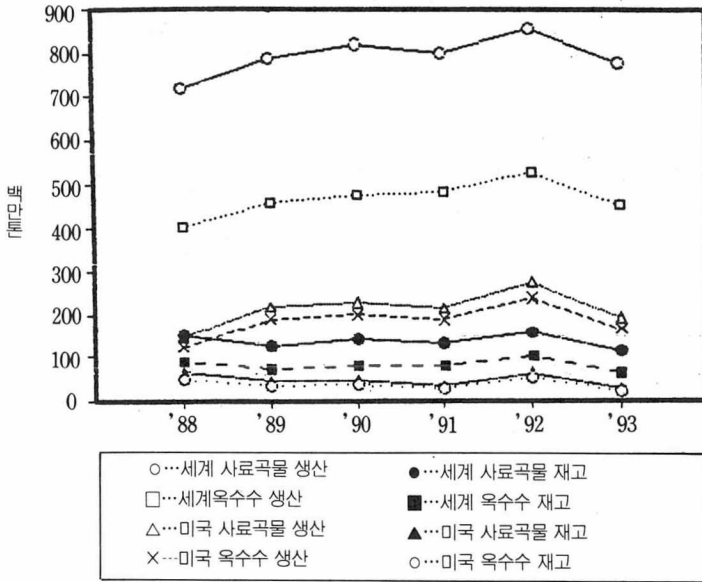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파종이 시작되는 3~4월에 들어서면서 기상조건에 따라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93년도와 같이 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없고, 순조로운 작황이 예상된다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3년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4년 가격추세는 세계 곡물 생산량이 '94년 1월 미농무성 생산보고서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의 신용공여로 미국 곡물의 수출이 재개될 전망임에 따라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지배적이므로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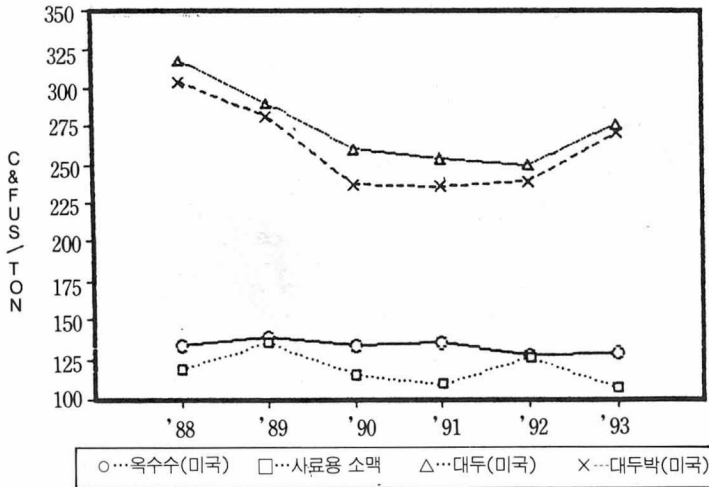
3. '94년 배합사료 가격전망

'93년도 미국의 흉수로 인한 곡물 생산량은 대홍작이 되어 옥수수 단위당 수확량은 '88/'89년 대한발 이후 최저수준으로서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지속적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두 및 대두박 가격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행히도 중국과 인도에서 옥수수와 대두생산이 풍작을 이루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의 홍수와 냉해 피해로 인한 사료용 소맥생산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사료업계는 이러한 정보를 재빨리 입수하고 저렴한 소



<그림 1> 세계 사료곡물 생산·재고



<그림 2> 사료원료 가격동향

맥을 옥수수와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세판단에 따라 세계의 가장 큰 곡물수출국인 미국의 흉작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3년말 현재 사료업체가 구매한 가격기준으로 볼 때 배합사료 가격 원가중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원재료비는 '92년말 대비 약 2.5% 정도 상승하였다. '94년 1/4분기는 0.

25%, 2/4분기의 경우에는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재료비 이외의 노무비, 운송비를 포함한 일반제조경비가 '92년말에 비해 10% 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배합사료 가격의 총제조원가는 '92년말 대비, '93년 12월부터 '94년 상반기 동안은 약 4.6~7.0%의 상승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월 15일 UR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95년부터 모든 외국인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는 갈수록 축산업을 흑자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94년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계는 마음이 어둡겠지만 정부는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하고 수입사료 원료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세토록 하여 생산비를 절감케 할 뿐만 아니라 업계와 학계는 기술과 경영을 개발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사료업계 모두가 합심한다면 '94년도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첫 준비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